

# 추석가정예배 순서지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 앙 고 백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찬송가 310장 ----- 다 같 이

- 1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 도 ----- 말 은 이

성 경 봉 독 ----- 시편 91편 14~16절 ----- 다 같 이

- 14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 15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 16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말 씬 ----- 일곱 가지의 **복(福)** ----- 인 도 자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어려움으로 인해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는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기치 않은 인생의 어려움에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건져 주시고 높여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랍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15-16절은 일곱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복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응답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함께 걷는 든든한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여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영화롭게 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존귀한 자로 세워 주셔서 사람들의 존경과 영광을 받도록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섯째로, 장수의 복입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까지도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건강을 누리고 오래도록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결과로 여섯 번째로 **만족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만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보호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영원한 구원까지 포함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길 원하시기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석 명절을 보내며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일곱 가지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 송 ----- 찬송가 559장 ----- 다 갈 이

-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 2절 아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주 기도 문 ----- 다 갈 이